

복지 노동 시민 환경 통일 평화... ‘종단 관심사 달라졌다’

종단의 관심이 내부문제에서 대 사회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올해 초 “자비와 화쟁으로 이웃과 함께 하겠다”고 밝힌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신년기사회견을 비롯해 새 집행부의 주요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중앙종무기관 업무변화 등 사회활동을 강화한 종단 정책의 변화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지난해 자승스님의 재임으로 출범한 34대 집행부는 출범 첫 공식 행사를 서울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연탄과 쌀을 전달한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 올해 첫 번째 자비나눔으로 내성천 지키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지을스님을 격려 방문했다. 앞으로 1사찰 1사회시설 운영 권장 △남북한 대화와 평화통일을 향한 불교의 역할 강화 △시민사회 영역, 이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 △종교간 화합과 교류 강화 등 이웃을 향한 보살행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종단 내부 종무행정 이 주류를 이뤘던 중앙종무기관 업무도 정부 기관, 시민사회단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로 확대됐다. 특히 총무원 기획실, 사회부, 문화부는 물론 산하단체인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화쟁위원회, 사회복지재단, 아름다운 동행 등 대사회업무를 맡는 부서들을 통한 종단 활동을 이 부각되고 있다. 총무원 관계자는 “과거 종단 내부행정과 관련된 업

무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정부 관련, 국내외 구호 등 대사회 활동에 대한 업무가 급증한 만큼 각 부서에서 다루는 회의 내용도 많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종단의 변화는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불교’를 내세운 33대 집

내부 ‘울인’ 기조 탈피 시작
사회현안이 종단 과제로 대두
복지 등 사회부서 업무 증가

총무원장 스님 메시지도
‘사회와 이웃과 함께’ 중심

종교화합과 교류 강화 등
이웃을 향한 보살행 지속

행부 출범과 함께 예고됐다. 당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취임식 전날 용산 참사 현장을 방문해 유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등 종단 전문기구를 설립하고 인기 동안 사회의 갈등이 첨예한 곳을 찾아다니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썼다. 또한 국내 저소득 계층은 물론 북한 수재민 긴급구호 지원, 아이티 지진과 일본 동북부 쓰나미 긴급구호, 아프리카 학교건

립 사업 추진 등 국내외에 자비나눔을 전했다.

이는 ‘개혁과 민주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지난 1990년대와 다양한 불사와 제도 정비를 통해 수행과 도제양성, 전법교화의 체계를 구축했던 2000년대 초반까지 내부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던 당시와 차별화된 면모를 보여줬다는 면에서 의미가 깊다. 그동안 종단이 내치에 기울였던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사회활동을 통한 종교본연의 역할에 나서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철 동국대 교수는 “통합종단 출범이후 종단의 역할이 불교의 정체성을 찾는데 중점을 둔 ‘상구보리(上求菩提)’의 시기였다”면서 “현재는 국민을 자비로 이끄는 ‘하화중생(下化衆生)’으로 사회적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인 만큼 이를 종단 정책에 반영한 것은 적절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종단의 이같은 대응불교 행보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 교구로 확산되고 종도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총무원 기획실장 일감스님은 “화쟁사상을 바탕으로 한 종단의 대사회 활동은 지역 교구본·말사 대중과 불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라며 “모처럼 맞은 불교중흥을 위한 종단 혁신기회를 잘 살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허정철 기자 hjc@bulgyo.com



아름다운동행이 지난 6일 선재의 선물 전달식을 갖고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에게 책가방과 학용품품을 전달했다. 사진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전달식에 참가한 어린이들에게 가방을 선물하는 모습.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따뜻한 관심과 사랑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 ‘선재의 미소’

전국 사찰과 불자들의 정성이 모여 입학할 앞둔 예비 초등학생들에게 책가방과 학용품품을 선물했다.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선재의 선물-책가방 보내기’ 포장식 및 전달식을 가졌다.

선재의 선물 사업은 전국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들에게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아름다운동행은 지난해 연말 약 3개월 동안 모금활동을 전개해 3300여 만원을 모금했으며, 이날 아름다운동행 지원단에서도 회원 108명이 5만원씩 정성을 모아 선재의 선물 기금으로 540만원을 전달했다. 불광

출판사도 700만원 상당의 불교동화 500권을 기부했다.

전달식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어린이들에게 직접 책가방을 걸어주며 입학할 축하했으며, 책가방과 문구류, 도서 등으로 구성된 선재의 선물을 받은 어린이들은 합창한 채 감사 인사를 올렸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스님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재의 선물 모금 캠페인에 동참해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연중 지속적으로 모금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름다운동행은 이날 포장한 선재의 선물을 전국 210여 곳의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된 508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염태규 기자 che11@bulgyo.com

국내 최대 어울림 마당 연등회 4월 26일 개최

부처님오신날 봉축 주요행사 일정 확정

불교정서 함께 공유할
찬불가 노랫말 ‘공모’

불기 255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2014 연등회’ 행사 일정이 확정됐다. 불교 최대 축제 연등회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인 만큼 다채로운 국민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수만 개 의연꽃등이 종로 일대를 수놓는 연등행렬은 오는 4월26일 오후4시부터 9시30분까지 화려한 막을 올린다. 이어 종각사거리에서 제등행렬을 마무리하는 회향한마당이 성대하게 펼쳐진다.

우리나라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를 만날 수 있는 전통문화마당은 4월27일 정오부터 오후7시까지 조계사 앞길 우정국로에서 진행된다. 같은 날 오후7시부터 화려한 춤과 흥겨운 노래 속에서 연등놀이가 마련된다. 전통등 전시회도 4월25일부터 5월11일까지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일대에서 만날 수 있다.

연등회보존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불교 전통과 현대음악의 창조적 조화를 바탕으로 한 찬불가 및 율동곡을 창작·보급하고자 ‘연등회 노랫말’을 공모한다. 연등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느낀 마음을 정리해 노랫말로 출품하면 된다. 접수마감은 오는 5월30일까지.

노랫말 내용은 주제나 내용은 연등회로 하고 노랫말은 관념적이지 않고 한문 없는 쉬운 말로 표현해야 한다. 부처님이나 보살 등 직접적인 불교용어 없이 불교사상과 가르침을 담아야 한다. 통절(1, 2절 없이 한 문장)과 유절(1, 2절 등), 운율(3, 4박자)을 고려해 문장길이를 표현해야 한다. 연등회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팩스나 메일(yungchang@buddhism.or.kr)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작은 개별적 홍보한다. 수상 작품의 저작권(작사) 및 저작권접권(출연)은 불교음악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음반 및 악보제작, 온라인 콘텐츠, 방송 등에 활용하기 위해 조계종으로 양도된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社告

‘군장병 위문품 보내기’

본지·군종교구·불교TV 공동캠페인

불교신문과 군종특별교구, 불교TV는 군포교 활성화를 목적으로 불교계 최초로 ‘군장병 위문품 보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추운 겨울 전방과 초소경계로 고생하는 장병들을 위하여 ‘햇쌀(손나로)’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청년포교의 핵심인 군불교 활성화를 위해 불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동참 바랍니다.

■ 후원계좌

우리는행 1005-991-000108

(예금주:군종특별교구)

■ 문의

02-749-8646

정월대보름에 갈 곳도 사찰...

6면

생명을 지킵니다 · 삶을 나눕니다 · 살림을 실천합니다
불교자살예방센터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 불교자살예방센터가 하는 일

- 위기상담 및 사례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자살의도자/시도자 유가족 관리 상담 및 집단상담 실시
- 불교적 자살예방 및 상실치유 프로그램 연구 · 교육과 죽음애도 치유전문가 양성 · 파견
- 생명존중 문화조성 대국민 캠페인 전개
- 자살예방 기본교육(Gate Keeper)

불교자살예방센터 등록 안내

- ▶ 자 격: 불교상담심리사 혹은 상담심리사가 근무하는 사찰이나 단체
- ▶ 기 간: 상시 모집
- ▶ 제출서류: 신청서, 이력서(서류 및 면접 심사)
- ▶ 센터요건: 상담가능 전화 및 공간 구비(방문 심사)
- ▶ 문 의: 불교상담개발원 02-737-7378

■ 불교자살예방센터 현황

서울	망향복지상담명상센터(은평)	02)6338-7676
	서울사건치료연구소(강남)	02)541-5171
	성림사(마포)	02)326-0006
	이경애심리상담소(은평)	02)354-4647
경기	보림사(이천)	031)634-3150
	불법사(평택)	031)663-0468
	장정사(용인)	031)332-8981
	정혜사(남양주)	031)576-8252
인천	몽운사(옹진)	032)836-9711
	만불선원(중구)	042)222-3316
	보성선원(달서)	053)626-3333
	지장선원(홍천)	033)436-7222
강원	맑은명상상담센터(산청)	055)974-1112
	명상상담센터 ‘엄’(무안)	061)454-2303
전남	영은사(목포)	061)382-3373



불교상담개발원 부설 불교자살예방센터협의회

불교상담을 만나면

삶이 **행복**해집니다

2014년 1학기

불교상담대학·대학원·사이버대학 신입생 모집

- 모집기간 _ 2014년 2월 28일(금)까지
- 교육기간 _ 2년 4학기 (1학기 3~6월, 2학기 9~12월)
- 수업시간 _ 대 학 화·목 18:30~21:40
대 학 원 월·화 18:30~22:00
사이버대학 수시 수강
※강좌 개별청강 가능(전화 문의)

- 등 록 금 _ 대 학 55만원
대 학 원 75만원
사이버대학 50만원
※각 과정 입학금 10만원 별도
- 지원자격 _ 고교 졸업 이상 사부대중 누구나
(대학원은 불교상담대학 또는 정규 대학교 졸업 이상자)

※ 졸업 시 혜택: 불교상담심리사(종단 자격증, 민간자격 등록), 일반포교사, 불교 청소년/어린이 지도사 응시자격
졸업 후 활동처: 사회복지시설, 학교, 사찰(템플스테이), 법원, 군부대, 교정교화시설, 병원, 자살예방센터, 자비익전화 등

입 학 문 의

02)737-7378
www.kbcd.org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